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현대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1월 4일 금요일 (음 11월 29일) 제220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군산 내항 역사 문화유산 활용

###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화 공모 선정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경제 관광산업 활성화 도·익산시 협업으로 익산역 부근 공모사업 발굴

전북도는 지난해 9월에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공모사업'에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이 최종 선정되어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간 내 문화재 보수정비, 역사경관 회복 등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장미동 일원/15만2,476㎡)은 1899년 대한제국 개항 이후 초기 군산항의 모습에서부터 일제강점기 경제 수탈의 아픈 역사와 근대산업화 시기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시설과 흔적들이 잘 남아 있어 보존·활용 가치가 높은 곳이다.

올해는 50억원을 투입하여 기초 학술조사연구와 지속적인 보존기반 구축을 위해 건축물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개별문화재에 대한 안내판 설치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종합적계획 등을 수행하여 사업 추진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종합적계획은 당해문화재를 중심으로 인접지역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추후 국고 보조금 재원 확보의 기반이 된다.

종합적계획이 수립되면 세부 사업 내용과 구체적 지원규모가 확정되며 문화재청의 최종 승인을 받아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보존·활용 기반 조성사업을 단계적·연차적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산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한 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는 등 경제 약세가 가중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간힘을 쓰고 있는 중에 대규모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의미를 더했다.

특히, 공모사업 대상지 인근에는 대한제국 개항기에 건립한 구 군산세관

본관과 일제강점기 경제?산업적 수탈을 위해 들어선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등이 위치함에 따라 고품격 근대역사문화 체험 및 교육공간 등으로 활용할 경우 전통문화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올해에도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와 확산 공모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별 매년 20~50억원의 국비를 5개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전북도와 익산시는 지난해부터 사전에 공모사업에 대하여 문화재청 동향파악을 해왔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을 실시해 공간(구역)내 근대건축유산 발굴,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민간의 준비를 해왔다.

앞으로 문화재, 활용기획,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컨설팅을 통해 사업내용 추진 방향·문화재 발굴·콘텐츠 발굴 등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평가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근대문화유산 등 역사문화화원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곳을 추가 발굴하여 대규모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공장은 "앞으로 군산의 근대문화유산과 새만금, 고군산군도 등 지역 문화·관광 인프라를 연계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문화유산 활용으로 문화복지를 확대하고, 고용창출에도 특목히 한 몫을 함께 따라 도내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도민이 소중한 문화재를 느끼고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화이팅" ... 전북도 새해 시무식

3일 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2019년 기해년 시무식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새해 도정발전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 새 옷입은 전라감영길 원도심 활력 불어넣어

#### 전주시, 34개 점포 대상 LED채널 간판개선 완료

전라감영 복원지에서 역사와 풍경 로까지 전라감영길 주변 상가의 노후 불량 간판이 아름답고 특색있는 간판으로 바뀌었다.

전주시는 전라감영길 일원 전라감영복원지에서 총경로 천일안경점까지 34개 점포에 대한 LED채널 간판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2억원의 예산을 투입, 해당지역 상가건물의 34개 업소의 기존 간판들을 철거하고, 38개의 LED채널 간판을 제작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의 나머지 2%는 점포주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간판을 고효율의 LED간판조명으로 대체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도 부합한다. /송호철 기자

\*토·일요일 신문 읽는다.

### 전주 온두레공동체 활성화 사업 'START'

#### 시, 5차년도 사업 공고·홍보 돌입... 올해 60여개 육성키로 예비학교 신청서 15~18일 접수, 이후 22~30일까지 운영

전주시가 주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주형 공동체 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 시는 올해 총 3억1000만원을 투입, 5차년도 온두레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 시작단계인 디딤단계와 지속성장이 가능한 이음단계사업 추진이 가능한 희망단계로 나누어 공동체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온두레공동체 사업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도모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전주형 공동체 사업이다.

우선, 시작단계인 디딤단계는 동일 지역을 기반으로 20명 이상의 거주민이 참여해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마을공동체다.

또한, '창업공동체'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주시민 5명 이상이 참여해 공동체 의식을 갖고 공동의 관심사로 운영된다.

시는 지난달 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현재 5차년도 온두레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월 말까지 사업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한다.

이후, 2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공모신청 접수에 앞서 참여의사를 밝힌 공동체들이 사업계획서 작성과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자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예비학교도 운영한다.

예비학교에서는 본 공모 접수에 앞서 △공동체가 무엇이며 △공동체 정신이 무엇인지 △보조금과 관련된 서류 및 회계 지침 등을 미리 알 수 있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고시/공고란에서 내려 받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방문하거나, 이메일(wsdyd9366@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063-281-9323,9334) 또는 전주시 공동체육성과(063-281-2498,5028)로 문의하면 된다.

/송호철 기자

#### 매일 INDEX

2면 -군산에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6면 -작년 외국인직접투자 269억 달러

전북의 핵심 '태양광메카' 세계적인 폴리실리콘 공장 운영 | 1989년부터 30여년간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 | 직·간접 고용창출 인원 2,500명 (2017년 12월 기준) | 안전하고 주민친화적 사업장 운영

## 槿賀新年

### 2019년 새해에도 OCI는 전북경제를 이끄는 대표기업이 되겠습니다

OCI 군산공장

안전에는 프로입니다